

조사목적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교통부는 균형있는 국토발전 및 국토관리, 주거복지,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토연구원 소개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조사규모 및 체계

-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일반가구 총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이번 조사의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조사기획은 국토연구원에서, 현장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합니다.

조사방법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는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결과를 노트북에 저장하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활용

주거실태조사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거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거관련 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활용성이 높은 조사입니다.
- 2006년부터 실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주택종합계획수립,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보금자리 주택공급방안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등 정부 정책수립과 관련 연구수행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임차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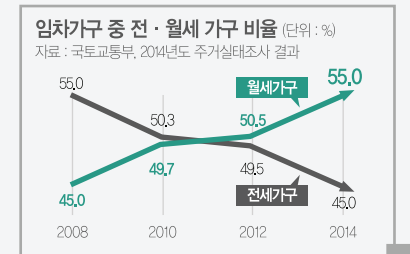
주거실태조사 관련 주요기사

불안한 월세, 치솟는 전세 값에 아우성

2016. 05. 20 **동아일보**

전세와 월세 중 집 없는 서민들은 단연 전세를 선호한다. 웹상 검색 트렌드를 보면, '전세'의 검색 빈도가 '월세'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여전히 사람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주거 안정을 주는 전세를 찾아 백방으로 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월세가 전세를 압도한다.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을 보면 이미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비율이 월세에 비해 10%포인트 더 높았지만 2010년이 되면서 비슷해지더니 2014년에는 월세가 55%로 전세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졌다. 월세가 임차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월세 가구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월세 횡포'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저소득자에겐 더 확대해야 한다', '합리적 월세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실정에 맞는 보호 정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알려준다.



주거수준 개선됐지만, 무주택자 주거 불안 악화

2015. 04. 16 **서울신문**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어들고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자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거주 기간도 짧아지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전과 비교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집계돼 30만 가구가 줄어들었다. 1인당 주거면적(부엌·화장실 등 공동사용 면적 중복계산)도 33.5㎡로 2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라며 '주택 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나 주거수준 향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소요연수 단축이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수준 향상이라기보다는 결혼이나 가구 독립 등으로 가구주가 된 연령이 2012년 30세에서 2014년에는 32세로 2년 늦춰지면서 그 기간 동안 소득(저축)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유 유형별로는 월세(82.3%), 전세(73.9%), 자가(59.0%) 순으로 조사돼 무주택자들이 더 대출금에 짓눌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가구는 55.0%로 2년 전보다 4.5% 포인트 증가했다.

내 집 꼭 마련, 해마다 낮아져 - 국토부 조사결과

2015. 01. 22 **경향신문**

34세 이하 내 집 마련 생각 계속 낮아져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은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79%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조사 당시 83.7%에 비해 4.6% 포인트 떨어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낮았다. 국토부는 '34세 이하의 경우 내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2014년 현재 70.9%로 가장 낮았으며 2010년에 비해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